김해 청소년 포교, 우리가 책임진다

7월 15일 김해파라미타 출범
윤수정 회장 취임…본격 활동
송산스님 "청소년 교육 역점"
문화재지킴이 발대식도 진행

성낙두 경남지사장



김해 불인사는 7월 15일 경내 3층 법당에서 '(사)김해파라미타청소년협회 출범식 및 초대 회장 취임식'을 봉행했다.

김해 지역 청소년 포교를 책임질 청소년 포교단체가 결성됐다.

김해 불인사(주지 송산)는 7월 15일 경내 3층 법당에서 '(사)김해파라미타청소년협회 출범식 및 초대 회장 취임식'을 봉행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해파라미타청소년협회 문화재지킴이 발대식도 함께 진행됐다.

김해파라미타청소년협회(이하 김해파라미타)는 불인사가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불인사는 10년 전 경남파라미타청소년협회 소속으로 활동을 시작해 여러 청소년 포교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 같은 활동을 바탕으로 김해파라미타청소년협회를 별도 법인 설립을 추진해 이날 출범식을 열게 됐다. 김해파라미타 총재는 불인사 주지 송산 스님이 맡았으며, 윤수정 초대 회장이 취임했다.

이날 김해파라미타 총재 송산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김해 지역 청소년 포교를 보다 내실있고 전문화하기 위해 별도 법인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며 "모든 청소년 회원들이 파라미타 활동을 통해 불교유산의 중요성을 알고 자비와 지혜를 키워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수정 김해파라미타 초대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미래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이 문화재 지킴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문화재 주변정화활동 및 모니터링 답사를 꾸준히 실천하겠다"면서 "또한, 청소년 심신성장활동, 자기계발 활동, 국제교류 협력과 청소년명상, 학부모명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가치, 역량을 십분 발휘하도록 지도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 내외빈들의 축하도 이어졌다. 율하선원 주지 석산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현실이 청소년들을 많이 답답하게 하고 있지만 오늘 김해파라미타 출범은 청소년들에게 숨통을 트이게 할 것"이라며 "총재 송산 스님을 도와 청소년들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청소년 포교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호 경남파라미타청소년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이 청소년 문화재 지킴이 활동에 큰 관심과 격려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정호 국회의원도 축사를 통해 "늦은 감이 있지만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김해파라미타 출범을 축하한다"며 "청소년들이 이기심과 욕심을 버리고 지혜가 샘솟는 자기 공부와 자비심이 넘치는 파라미타가 되기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김경숙 지도교사에게 우수지도자 표창이 전달됐으며, 주상정(동명고)·주형철(동명중)·이지윤(월산중)·이시운(관동초) 학생에게 각각 우수회원 표창이 수여됐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김해파라미타청소년협회 총재 송산 스님, 안국선원 김해포교당 율하선원 주지 석산 스님을 비롯해 김정호 국회의원, 김재호 경남파라미타청소년협회장, 성규종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전북도민도 연꽃처럼 청아하길"

(사)우리문화연구원, 전주 연꽃문화축제 개최

코로나로 중단됐던 전주연꽃문화축제가 3년 만에 열렸다.

(사)우리문화연구원(대표 일원, 금산사 주지)는 7월 15~16일 1박 2일 동안 전국적인 연꽃 명소로 꼽히고 있는 전주 덕진공원에서 '2023 전주연꽃문화축제'를 개최했다.〈사진〉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특별무대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우리문화연구원 대표 일원 스님(금산사 주지)을 비롯해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 금산사 부주지 원혜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화평 스님, 금산사 재무국장 제환 스님, 남고사 주지 석초 스님, 한광수 금산사 신도회장, 김성주 국회의원, 김용수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김성규 전주시의원 등 지역 스님들과 불자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전주 연꽃축제는 오전부터 국악공연, 통기타 연주 등의 각종 공연이 이어졌으며 수묵화 그리기, 합장주 만들기, 종이 연꽃 만들기, 다도체험 등 불교전통문화 체험 부스가 마련됐다. 시민노래자랑 열렸으며, 가수 소리새, 후니용이 등이 출연해 흥겨운 공연도 선사했다.

일원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전주 덕진연못은 후백제대에 축조된 후 기우제를 지내는 등 풍년 농사를 기원하고 전주를 풍요로운 세상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전북도민의 염원이 이어져 온 곳"이라며 "전주 연꽃문화 축제를 맞아 연꽃의 청아함처럼 전라북도민의 마음도 항상 평안하고 청아하시기를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은 축사를 통해 "시민 여러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문화의 향연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연꽃 문화축제를 개최하는 목적"이라며 "전주 덕진공원의 연꽃처럼 항상 밝고 아름답게 살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금산사 부주지 원혜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전주 덕진연못은 전주시민의 자랑거리이자 전주 팔경 중 하나" 며 "옛것과 조화를 이루면서 현대적인 감각으로 다시 태어난 전주 덕진연못에서 전주를 찾는 모근 분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 종교계 "日방사능 오염수 투기 반대"

광주종교인평화회의, 7월 17일 '종교계 공동선언'

광주종교인평화회의(대표 도성)와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광주전남공동행동은 7월 17일 광주YMCA 백제실에서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광주전남 종교계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광주종교인평화회의 등은 7월 17일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광주전남 종교계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광주종교인평화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 종교인들은 이윤이 아닌 생명의 가치가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세상을 기원하며, 방사능 오염수로부터 우리 모두가 안전해 지는 그날까지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종교인평화회의는 한국기독교연합회, 광주불교연합회, 천주교광주전남교구, 광주전남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광주교구, 전국유도회광주향교로 구성돼 있다.

광주종교인평화회의 대표 및 광주불교연합회장 도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가 문제시하고 있는 방사능 오염수 배출은 우리의 먹거리를 포함해 생활 속에서 방사능에 피폭되는 굉장히 위험한 보건의료의 위기"라며 "국가는 이런 위중하고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을 지키고 노력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대표 해청 스님도 발언을 통해 "일본은 오염수를 안전하게 육상에 저장소를 만들어 보관하는 방법이 있는데, 137만톤의 오염수를 30년 동안 하루에 125통씩 희석해서 방류한다고 한다"며 "바다는 우리와 온전히 연결되어 있는 생명의 근원으로, 향후 인류의 대쟁앙의 시작이자 죽음의 발화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는 철회돼야 하고, 태양과 바람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통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창원시민 힐링공간으로 만들겠다"

창원 성주사, 템플스테이 체험관 기공식 봉행

연건평 492.91㎡ 규모 조성
조사전 신축 등도 함께 추진



창원 성주사는 7월 13일 신축부지에서 템플스테이 체험관 기공식을 봉행했다.

창원 성주사(주지 법안)가 템플스테이 체험관 기공식을 봉행했다.

7월 13일 템플스테이 체험관 신축부지에서 봉행된 기공식은 개식, 삼귀의, 경과보고, 공사개요,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테이프 컷팅, 시삽, 기념촬영, 회향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기공식을 가진 창원 성주사 템플스테이 체험관은 1층은 317.79㎡(96.3평)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이고 2층은 175.12㎡(53평)의 전통 한옥 양식구조로 연건평은 492.91㎡(150평) 규모이다.

성주사 템플스테이관은 1층은 템플스테이 관리동으로 약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방 1개와 다실, 종무실, 종무원실 2개, 기타 서비스실이 들어서며 2층은 템플스테이 숙박동으로 커넥팅 룸으로 구성된 VIP실 2개, 다실 2개, 일반 객실 3개, 기타 서비스실로 구성됐다.

성주사 주지 법안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템플스테이 체험관을 찾는 시민들과 불자들이 마음을 정화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한 겹 한 겹 저희가 쌓아서, 부처님 법이 이 세상에 온전하게 스며들고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명래 창원특례시 부시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불교 문화의 선지식과 선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관이 건립된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환영하고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템플스테이관 신축과 함께 성주사는 부도전 정비공사, 관음전 주변 석축 및 배수로 정비공사, 조사전 신축 등 다양한 불사들을 함께 추진한다. 또한 내년에는 가야불교교육관 건립에 나설 계획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논산 안심정사, 수해 주민에 구호물품 지원

대피구호소에 식료품 전달



논산 안심정사(주지 법안)가 7월 15일 폭우가 쏟아진 논산지역 수재민들이 대피해 있는 논산 광석초등학교를 방문해 긴급물품을 지원했다.〈사진〉

광석초등학교 대피소 수재민들에게 전달된 구호물품은 안심정사 만선공덕회의 후원으로 총 200만 원 상당의 컵라면, 우유, 간식류, 드링크제 등 당장 주민들에게 필요한 간편식 위주로 구성됐다.

이날 전달한 구호 물품은 논산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광석초등학교 강당 등 각 지역에 분산해 있는 수해피해 주민에게 전달했다.

법안 스님은 "이번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한다" 며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서로 서로 도와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안 스님은 논산시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매월 꾸준하게 사랑의 쌀 기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다. 또한 소년원 재소자 지원,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정 지원 사업, 해외포교활동 등 소외계층을 위한 각종 사회봉사 활동을 펼치며, 부처님의 자비를 몸소 실천해 귀감이 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